

전남광주 국회의원 상임위 ‘농해수위·산중위’ 편중

22대 하반기 국회, 국방·과방·정무·기노위 전무
군공항이전·에너지클러스터사업 등 차질 우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광주특별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활동할 하반기 국회 상임위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등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국방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등에는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광주특별시 최대 현안인 반도체 산업 육성과 쇠락하고 있는 농업을 지원하는 데는 힘이 실리겠지만 반면에 군공항 이전사업, 인공지능도시 조성, 지구온난화 등의 현안 대응에는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늦게 본회의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원회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했다. 나머지 7곳의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으로 남았다.

민주당은 아울러 18개 상임위원회(14개 상임위 + 복수배정이 가능한 4개의 상임위와 특위) 별로 상임위원이 되는 당 국회의원들을 모두 배치했다.

이에 따르면 광주특별시 지역구 국회의원 18명은 모두 9개 상임위원회와 2개의 특위에 배치됐다. 의원들이 가장 많이 배치된 곳은 산중위와 농해수위다.

산중위에는 김원이(목포)·정진욱(동남갑)·임

지역구 국회의원 상임위 배정

상임위	성명
산중위	김원이·정진욱·임문영·권항엽
농해수위	서삼석·이개호·주철현·문금주
법사위	박준택·박지원
재정경제위	신정훈·안도걸
문체위	정준호·조계원
교육위	김문수
행안위	양부남
보건복지위	전진숙
국토교통위	조인철

문영(광산을)·권항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 4명이, 농해수위에는 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신안)을 비롯해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주철현(여수갑)·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 4명이 배정됐다.

정부와 대기업의 서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과, 농수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지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한 차원으로 얹혀진다.

특히 서삼석 의원은 농해수위원장에 선출돼 지역구 국회의원들 가운데 유일하게 상임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3선 내내 줄곧 농해수위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로 지역 농어업을 한단계 도약시킬 정책대안과 해법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하반기 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홍남**

이러 법사위에는 박준택(광산갑)·박지원(해남 완도진도) 의원이, 재정경제위원회에는 신정훈(나주화순)·안도걸(동남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정준호(북갑)·조계원(여수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또 교육위에는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양부남(서울)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전진숙(북을)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조인철(서갑) 의원이 배치됐다.

하지만 인공지능 실증계획, AI산업 육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방위는 물론 광주군공항이전사업

의 기를 쥐고 있는 국방부와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국방위에는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갈수록 심각한 기후 변화에 대응한 정책을 마련하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협력하며 지역 에너지산업을 이끄는 데 절실한 기노위와, 돈의 흐름과 시장질서, 국무를 조율하며 대기업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정무위도 지역구 의원들은 외면했다.

그나마 복수 참여가 가능한 예결위와 운영위에 다수가 참여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에 대해 지역정가에서는 “후반기 상임위 배치

와 관련해 책임지고 이를 제어할 민주당 광주특별시당위원장이 선출되지 않는 등 정치적 조율이 부족한 탓도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실제로 이번 하반기 상임위 배치에서 새로운 상임위를 배정받은 국회의원은 이개호·신정훈·정준호·조인철 의원과 새로 국회에 입성한 임문영 의원 5명에 불과했다.

13명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기존 상임위에 그대로 눌러앉아 전반기 국회에서도 전남 의원들을 대상으로 제기됐던 ‘상임위 편중’ 지적을 재차 받게 된 것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 대통령, 문 전 대통령과 청와대 회동

“서남권 반도체투자 도약해 퀀텀점프 할 것”

‘지역균형발전’ 국정 현안 한 뜻 모아
문 전 대통령 “광주행사 기본 좋아”
“수도권으로 지역 인재 몰리지 않길”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홍남**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서남권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도약대 삼아 대한민국의 ‘퀀텀점프(비약적 성장)’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에 초청한 자리에서 “이번 발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그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두 전·현직 대통령은 이날 상춘재에서 2시간가량 오찬과 산책을 하며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두 전·현직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이 중요하며, 특히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국가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균형발전이었는데, 그게 쉽지 않았다. 절박하긴 하지만 (수도권으로) 몰리는 걸 어떻게 하나”라고 언급한 뒤, 최근 서남권 대규모 반도체 투자 발표와 관련해 “그런데 다행히 인공지능이 상상 이상의 발전을 이루는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의) 결단으로 용인에 클러스터를 만들었지만 수도권에 빠져버리면서 이제 갈 곳이 호남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민주 정부의 성과로 인한 새로운 과실”이라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번에 광주 행사 보고 정말 기분 좋았다. 사실 우리 정부 때 서남해 그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품목발전하고, 태양광발전 많이...”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것은 대통령께서 육성해 놓은 덕이다. 그게 없었으면 지금 새롭게 시작하기 어려운 상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그 시절에는 그쪽에 다른 발전 동력이 없어서 그렇게 간 건데, 그게 지금은 이제 기반이 돼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이 그쪽으로 가고, 이번에 대형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가 거기로 가고 하는 것 보니까 정말 참... 어쨌든 그렇게 잘 이렇게 이끌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그런 측면에서도 근래 거

두고 있는 아주 획기적인 성과에 축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지역균형발전은 역대 민주정부가 아주 중요한 국정 목표로 세우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막지 못했다. 이 대통령께서 이런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셔서 이번에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서운하다고 말하는 지역까지 잘 아울러 주시고, 지역의 인재들이 일자리를 얻어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일이 없는 그런 나라를 꼭 기필코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은 민주 진영의 단합이 절실하고 국민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면서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속이 단단해야 한다”며 “그리고 끊임없이 의견을 확장하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통합으로 나아가려면 당내의 단합이 출발점”이라며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그 위에서 민주개혁 진영과 ‘빛의 혁명’을 함께 했던 세력들과 더 큰 단합을 이뤄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초대 원구성 마무리

의장에 4선 송형근...부의장에 조석호·김문수
상임위원장 12명도...비민주, 선출 절차 지적

전국 최초로 광역의회가 통합해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초대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1일 전남 무안 남악서 본회의장에서 제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전체 의원 91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했다.

초대 의장에는 4선 송형근(고흥1) 의원이, 1 부의장에는 조석호(북구3·3선), 2 부의장에는 김문수(신안1·3선) 의원이 선출됐다.

12명의 상임위원장도 선출됐다.

초대 운영위원장은 신민호(순천6·3선) 의원이 맡는다. 선임 기획재정위에 임형석(광양·재선) 의원이 선출됐으며, 행정소방위 박성재(해남·3선), 미래산업위 이귀순(광산·재선), 농수산위 류기준(화순·재선),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박원중(영광·재선), 일자리경제위 진호진(곡성·

재선) 의원이 각각 확정됐다.

또 안전건설위 강정일(광양·3선), 도로교통위 강수훈(서구·재선), 문화관광체육위 홍기일(동구·재선), 보건복지위 안평환(북구·재선), 교육위 최정호(목포·재선) 의원 등이 상임위원장으로 뽑혔다.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으로 나눠 투 트랙 운영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2명의 위원장을 차례로 선출할 예정이다.

첫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독점 구도에 대한 소수 야당의 비판이 제기됐다.

박형대(장흥1), 강광석(강진), 신연순(비례), 윤민호(북구2), 최경미(광산구3) 의원 등 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조기 선출과 교섭단체 구성요건 등을 문제 삼으며 전국 최초 통합시의회가 절차적 정당성과 협치의 원칙을

시의회 의장단		
직위	선거구	성명
의장	고흥1	송형근
부의장	북구3	조석호
부의장	신안1	김문수
상임위원회 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순천6	신민호
기획재정위원장	광양1	임형석
행정소방위원장	해남2	박성재
미래산업위원장	광산4	이귀순
농수산위원장	화순2	류기준
기후환경에너지위원장	영광1	박원중
일자리경제위원장	곡성	진호진
안전건설위원장	광양2	강정일
도로교통위원장	서구1	강수훈
문화관광체육위원장	동구2	홍기일
보건복지위원장	북구1	안평환
교육위원장	목포4	최정호

지킬 것을 촉구했다.

윤민호 의원은 “역사적인 순간인 만큼 더욱 법과 원칙, 민주적 절차를 지켜야 함에도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이개호 “스타벅스 탱크데이 외친 야구부 해체 검토를”

“배재고 사태, 반역사적 혐오문화에 엄정 징계...재발방지 대책 마련”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사진)은 1일 최근 제8회 청룡기 전국교교아구선수권대회에서 불거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민주주의의 역사를 조롱한 반역사적 혐오 행위에 대해 교육 당국과 대회 관계기관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개호 의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 시민들의 피와 희생 위에 세워졌으며, 오늘날 학생들이 자유롭게 운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 역시 그 숭고한 희생의 결과”라며 “이를 조롱하는 것은 단순한 장난이나 일탈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폭력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동성고와 진흥고 등 다른 학교와의 경기에서도 유사한 조롱이 반복됐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황금사자기 대회에서는 충암고 선수가 광주를 ‘내란의 요람’이라고 비하하는 발언까지 있었다”면서 “반역사적 혐오 문화가 일부 학교 운동부에 만연해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 당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단순한 경기 중 일부 학생들의 일탈로 치부하거나 적당히 덮어서는 안 된다”며 “명백한 학교폭력자가 민주 역사에 대한 심각한 모독인 만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재고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청룡기 전국교교대회에서 상대 팀인 광주제일고의 상대 거그아웃을 향해 “가자, 가자, 스타벅스 가자”,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크게 외쳐 국민적 공분을 샀던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를 연상케하며 5·18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낸 데 이어 교원단체들도 역사왜곡과 ‘극우 놀이 문화’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양시의회 의장 이기연 의원 부의장에 정구호 의원 선출

광양시의회는 1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에 이기연 의원(민주당·사진), 부의장에 정구호 의원(민주당)을 각각 선출했다.

이 의장은 14명의 시의원 중 13명이 참여한 선거에서 11표, 정구호 부의장은 12표를 얻어 선출됐다.

3선 의원인 이기연 신임 의장은 “15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며 “시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서 답을 찾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